

진리 · 사랑 · 자유의 韓神大學

朱 在 鏞

(韓神大學長)

1. 日帝末 民族資本으로 設立

오늘의 한신대학의 모체는 1940년 4월에 개원한 '조선신학원'이다. 암울했던 일제의 식민지 통치 말기에는 거의 모든 기독교 교육 기관이 문을 닫아야 했었다. 이때 기독교 교육 기관은 대부분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었다. 이점에서 '평양신학교'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때까지 한국 교회, 특히 장로교회의 교역자를 양성해 오던 평양신학교가 문을 닫게 되는 것이 계기가 되어 우리의 힘으로 한국 교회와 민족을 위한 성직자를 양성하기로 뜻을 모으게 되었다. 여기에는 한국인의 자주적인 힘으로 민족과 세계의 지도자를 길러야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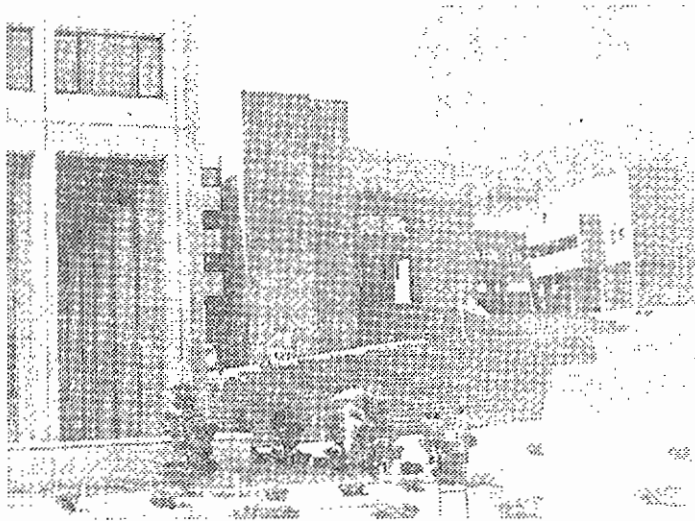
이와 같은 의지가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게 된 것은 金大鉉장로가 일금 30만 원(25만 불)을 신학교 설립 기금으로 헌금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한국의 草創期 信者로서 일본 경찰의 위협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으며, 평생 동안 모든 수입에서 1/10을 떼어 金必猷이란 이름으로 저축을 했으며, 생의 마지막 무렵에 재산을 두 아들, 부인 그리고 당신 몫으로 나누고, 당신의 몫 전부를 신학교 설립 기금으로 내놓으셨다. 지금 한신대학의 교수 연구동의 이름을 '必猷館'이라 한

것은 그를 기념하기 위함인 것이다.

평양신학교가 神社參拜 문제로 폐교를 당했을 때, 비록 우리의 자본으로 설립은 했으나 오히려 친일적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으나, 조선신학원이 설립 인가 신청을 낼 때, 평양신학교 재건위원회도 인가 신청을 냈으며, 후자는 평남 도지사의 적극적인 지지 후원을 받아 총독부로부터 정식으로 학교 인가를 받았으며 그 때문에 조선신학교 설립 위원회는 학원의 성격을 띤 조선신학원의 인가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金大鉉장로의 '必猷'과 '以小成大' 사상, 金在俊목사의 '主體的自由' 사상 그리고 宋昌根목사의 '聖貧' 사상은 한신대학의 창학 이념의 주춧돌이 되고 있다. 이 세 사람은 한신대학 설립의 세 기둥들이다.

'필현'은 '한 알의 밀알', 즉 땅에 떨어져 죽어 열매를 맺는 이념, 진리와 자유를 위해, 사람을 사랑하기에 자기 전부를 내놓는 이념이다. 그리하여 한신대학은 1969년에 미감아 교육을 위해서 병설 '한신국민학교'를 개설했던 것이다. '이소성대'는 작고 보잘것 없는 것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그 일에 봉사하므로 크게 이루는 이념이다. '主體的自由'는 신앙과 학문의 자유를 의미한다. 따라서 한신대학은 규격적이고 획일적



◀ 韓神大學은 진리·사랑·자유의 이념 아래 自主와 思想的 自立, 自由와 豫言者의 批判, 人間化의 歷史에의 參與를 敎育의 目的으로 하고 있다.

인 인간 유형을 위한 교육을 배격한다. 모든 사람을 참으로 사랑해서 봉사하는 자유, 진리를 사랑하는 자유, 그러나 진리에 노예가 되는 자유를 주장한다. '聖貧'은 플로렌시스의 사상이다. 이것은 인간을 소유 의식의 노예에서 자유케 하는 것이다. 성빈 생활은 날마다 자기를 비워(空)가는 생활이다. 이와 같은 이념을 '진리' '사랑' '자유'로 집약 표현해서 지금 학교 교훈으로 하고 있다. 이 理念에 의한 敎育을 통해서 自主와 思想的 自立, 自由와 豫言者의 批判, 人間化의 歷史에의 參與를 하는 삶의 훈련을 한신대학은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연구하고 가르쳐서 '人間의 社會化, 社會의 人間化'를 목적하는 것이다.

한신대학은 조선신학원에서 출발하여 조선신학교와 한국신학대학을 거쳐 1980년에 '한국에 있어서 참신하고 효과적인 선교의 임무를 감당하며, 우리의 民族文化 창조에 이바지할 수 있는 使命을 완수하기 위하여' 일반 대학으로 기구를 改編 發展시킨 것이다. 이것을 위한 신학적 근거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신학인 것이다. 즉 인간 생활 전 부분에 그리스도의 정신이 조형 이념이 되어 사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과거에는 교역자만을 양성하는 신학과 단일의 단과대학의 규

모에서 지금은 14개 학과에 모집 인원이 580명 규모의 대학으로 변하였다.

2. 敎育環境 및 施設

한신대학은 1980년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유동에서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양산봉 기슭으로 이전하고 수유동 캠퍼스는 敎役者 養成 專門機關인 신학대학원의 敎育의 場으로 사용하고 있다. 양산동 캠퍼스의 대지는 약 15만 평이다. 오산이 市로 승격되면서 양산동이 된 이 마을은 문화적으로 발전되지 못한 작은 농촌 마을이다. 아직도 대학촌으로서 모습을 形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의 주변 환경이 양호한 편에 속한다고 할 수가 없다. 대학생들을 수용할 문화공간이 거의 없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다만 학교가 행정적으로는 오산시에 속하면서도 水原市가 가깝게 있고 수원대학교가 인근에 있으며, 歷史 遺蹟地가 주변에 있어서 敎育 환경에 유익한 요인이 되고 있다.

한신대학은 대학내의 全人敎育을 實現하기 위해 '敎수와 학생이 함께 생활하며 연구하는 生活館 중심의 대학'을 구상하고 그 1차 계획에 의하여 1986년에 학문과 공동체 생활의 시범장으로 '聖貧學舍'를 건립했으나, 현재는 전교생의

1/4 이 복지 혜택을 받을 뿐이어서 소기의 목적을 만족하게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민족과 인류를 생각하는 참된 봉사자를 다듬는 성빈학사는 그 시설과 분위기 면에서도 타 기숙사의 모범이 되고 있으며, 학생들의 자율적인 생활관 운영은 책임적 시민교육과 '함께 사는 삶'의 훈련의 틀이 되고 있다. 또한 성빈학사는 학문과 인격 수련의 절실한 요청에 부응하여 설립된 한신대학 文化創造에 있어서도 中樞의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재원이 넉넉하지 못한 사학으로서 현재 성빈학사 이외의 교수 연구동, 대학 행정관, 학생들의 활동의 본부가 되고 있는 임마누엘관(학생관), 강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晚雨館(만우는 송창근목사의 아호)이 있고 기독교 대학의 상징이 되고 있는 대학 채플 건물이 있을 뿐 제 규격의 운동장도 마련하지 못했으며, 더욱이 대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도서관이 아직도 건축되지 않고 있음은 수치스러운 敎育 施設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러나 개교 50주년과 종합화 10년을 기념하기 위해 내년에 운동장과 도서관을 마련하는 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으며, 이것이 가능해지면 기본적인 학교 시설과 쾌적한 교육 환경이 마련되는 셈이다. 이와 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에 학생들의 福祉 次元에서 우체국을 학교내에 개설하였는데 규모가 큰 대학에는 특별한 것이 아닐지 모르지만, 한신대학과 같은 2,000여 명의 소규모 대학으로서는 敎育 環境의 改善의 차원과 지역 주민들의 통신 생활의 편의의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3. 機構 및 敎育 內容

한신대학의 기구는 일반적으로 대학이 갖는 기구를 보다 機能的이고 經濟的인 次元에서 단순화시켜 놓고 있는데, 아무래도 特別한 側面은 敎育 內容에서도 언급이 되겠으나 한신대학이 신학과에서 기독교대학으로 출발했다는 데 있을 것이다. 즉 대학원의 경우 신학과를 위시해서 철학과, 독어독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등 4개 석사 과정이 있으며 박사과정으로는 신학박사 과정이

있다. 이는 앞으로 한신대학이 발전해 나가는 데 초석이 될 것이며 한국 교회와 민족의 精神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목회자의 지적 수준을 높이고 품격 훈련을 위하여 특수대학원을 설치하고 목회자 지방생으로 하여금 반드시 신학대학원 과정을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신대학은 교목실이 있어 예배와 상담, 기타 신앙 집회를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기독교인의 신앙 생활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데, 이 교육 내용은 한신대학의 독특한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전교생에게 필수 과목으로 개설하고 있는 기독교 교양 과목, 즉 '성서의 세계'와 '기독교와 문화'(4학점)와 함께 그 궁극의 목적을 학생들을 교인이 되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세계관·인생관·가치관을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이 보다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다.

한신대학의 교육 방침은 목회자를 양성한다는 좁은 의미의 신학교육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지닌 사회 각 분야의 지도자, 즉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백성'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신대학은 기존의 좁은 신학대학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 신학과 일반 인문·사회과학 그리고 기초과학 분야 학문과의 접목을 시도, 학문 상호간의 교류를 통한 학문의 종합화(university)를 이루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서 앞으로 증과가 더 되어야 하겠으나 '89년도 현재는 5개 학부 14개 학과가 있다.

- 신학부 : 신학과, 기독교교육과
- 사회사업학부 : 사회복지학과, 재활학과
- 인문학부 :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중어중문학과, 국사학과, 철학과
- 경상학부 : 경제학과, 무역학과, 경영학과
- 이학부 : 수학과

여기서 특별히 언급해야 할 것은 '재활학과'이다. 우리나라 심신 장애자 복지는 지금까지 가정 및 시설 보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선천적 혹은 환경에 의해서 장애를 입고 사회 활동이 어려운 사람들과 할지라도 그들은 마땅히 人間으로서의 權利를 保障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도의 인간다운 생

활 나아가서 행복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재활학과는 이들의 권익과 재활을 위한 정책 및 서비스 분야에서 종사할 전문 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인문 계열의 대학으로서는 국내에서 최초로 설립된 학과이다. 재활학과와 교과목은 사회복지의 철학과 정책, 교육재활, 심리재활, 사회재활, 직업재활, 재활공학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재활학과는 사회복지학과와 함께 사회의 어두운 곳에 가서 봉사하는 기독교인의 이미지를 분명하게 할 것이며, 지금까지 한신대학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한신대학의 학문적 성향은 예를 들면 정치경제학 또는 민중신학(해방신학), 제3세계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신대학이 學問의 劃一的 性向, 학문의 激條的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한신대학은 교수들의 학문 연구와 발표에 있어서 한국의 어느 대학보다도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대학이다. 그렇지만 한신대학이 기독교 대학이기 때문에 타대학과 같은 경제학파가 있다 해도 신학과의 학문적 제휴 또는 교류(interdisciplinary)를 통해 경제학의 기독교적(또는 신학적) 이해를 시도하고 있다.

한신대학의 교육 이념을 보다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것의 사회적 실천을 위해서 각 연구소가 있다. 한신경제과학연구소, 평화연구소, 제3세계문화연구소, 사회복지정책연구소, 경영과학연구소 그리고 교회와 신학연구소 등이다. 이 연구소들의 研究活動이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여 미미하게 보일 것이지만, 한국 사회의 정의평화, 자유통일의 정책 제시를 하게 될 때가 올 것이며 그때가 되면 한신대학은 새로운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4. 未來의 비전—작으나 알차게

한신대학은 단과 신학대학에서 타학과를 포함하는 종합화된 대학으로 탈바꿈을 한 지가 이제 9년밖에 되지를 않았다. 그러므로 이미 언급했듯이 시설을 비롯하여 연구·교육 환경 등에 있어서 기존의 큰 대학들에 비하면 빈약한 대학이

다. 더욱이 한신대학은 기업화된 대학도 아니고 어느 대자본가가 교주가 되어 있는 대학도 아니라 한국 기독교 장로회라는 교단이 운영하는 대학이다. 그런 점에서 發展의 속도가 느릴 수가 있다. 더욱이 지난 날 社會正義와 民主化 鬭爭 過程에서 反政府的 입장을 뚜렷이 했기 때문에 증가·증원을 비롯하여 정부의 후원을 받을 수도 없었다.

그러나 한신대학의 발전 계획은 양적인 확장만을 추구하는 맘모스 종합대학교를 만들려는 목적보다는 민족과 인류를 섬기는 참된 봉사자의 육성이라는 교육을 이루어 가는 일을 첫째 목적으로 하여 우수한 교수진을 중심으로 質의 수준의 向上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학문적 전통은 한국 신학계에서 전위적 역할을 담당해 온 한국신학대학의 정신적 유산에 근거한 것이다.

그래서 한신대학은 ① 대학의 대형화보다는 적정 규모(4,000~5,000명)의 대학을 이루어 교육의 내용과 질을 높이며, ② 학문 상호간의 폐쇄성을 극복하여 학문의 종합화를 이루고, ③ 생활관 중심의 대학으로서 人格訓練과 學問하는 姿勢를 교육하며, ④ 지역 사회와 더불어 발전하는 대학의 상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첫째로 한신대학은 현재 580명의 입학정원을 매해 점차적으로 시설 확충 계획과 함께 1,000여 명이 될 때까지 늘릴 계획이지만, 증과 계획은 한신대학의 建校理念의 具現에 보다 효과적인 학과에 치중할 것이며, 동시에 학교 재단의 교육 투자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첨단 과학 분야에 대해서는 포기할 생각이다.

둘째로 대학원을 확충할 것이다. 오늘의 학문적 추세이기도 하겠으나, 학부에서는 보다 인문 과학 전반에 걸쳐서 폭 넓게 지식 경험을 하게 하고 전문 분야의 본격적 학문 수련은 대학원에서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대학원이 있는 학과의 교수를 보다 더 충원해야 할 것이다. 학교의 재원 투자는 교수의 확보와 연구에 우선적으로 할 계획이다. 이제는 학생 수를 늘려 등록금에서 수지를 맞출 때가 아니다. 100%를 교육에 투자해야 하는 것이다. 이같은 投資哲學은 한신대의 정신에 기초가 되고 있다.

셋째는 위에서도 이미 지적했듯이 내년은 개교 50주년, 종합화 10주년, 1990년대의 첫 해가 되므로 한신대학 발전사에 있어서 일대 도약의 전환기가 되도록 할 것이다. 종합화 10년의 自己批判과 함께 한신대학의 建校理念의 再確認 그리고 미래 방향에 대한 정립을 할 것이다. 도서관 건축, 운동장 건설 등은 모두 50주년, 10주년이 갖는 의미의 가시적 상징물들이 될 것이다. 학생들은 학생회관을 통하여 모든 자치적인 활동을 하게 하여 민주 시민의 훈련을 하게 하고, 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학문 연구 활동과 지적 추구를 하게 하며 운동장에서는 건강한 몸의 단련을 하게 하는 것이다.

넷째는 교내의 미화 작업이다. 대학 내에 과

실수를 심으며, 꽃나무를 심어 계절에 따라 꽃피게 하고 곳곳에 휴식 공간을 만들어 젊은이들의 정서가 매마르고 황폐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산을 뒤에 등지고 약 15만 평의 대지를 가지고 있는 한신대학은 공간의 여유가 비교적 많기 때문에 대학을 공원화하고 산책로를 만들면 理想을 통해 인생의 깊은 뜻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신대학은 보다 더 自己統御的으로 自律化된 大學, 民主化된 大學으로 발전해 갈 것이다. 대학 구성원의 의견은 그것이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면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건교 이념은 더욱 분명히 하여 私學으로서 한신대학의 존재 이유를 밝힐 것이다.*